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07/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1-수특 고전시가 09 1~4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장 군노(執杖軍奴) 거동(舉動)을 보라
 춘향을 동틀에다 쫓그라니 올려 매고
 형장(刑杖)을 한 아픔을 더럽다 덤석 안아다가

[A] 춘향의 앞에다가 좌르르 펄뜨리고
 좌우 나졸들이 집장(執杖) 배립(排立)하여
 분부 들주어라 여쭙어라
 바로바로 아뢰 말씀 없소 사또 안전(案前)에 죽여만 주오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는청는청

[B] 춘향이를 결눈을 주며 저 다리 들어라
 골(骨) 부러질라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나 죽은들 너 매우 치라느냐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
 형장 하나를 골라 쥐고 선뜻 들고 내닫는 형상(形狀)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使者)가 철퇴를 들어 메고 내닫는

[C] 형상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번개하듯
 십 리만치 물러섰다가 오 리만치 달려 들어와서
 하나를 드립다 딱 부치니 아이구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 잎은 돋았다가 다 똑똑 떨어져서
 ㉡ 허허한치 광풍(狂風)의 낙엽이 되어 / 청버들을 좌르르 훑어
 ㉢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호늘거려 떠나려 가는구나 / 말이 못된 네로구나

- 작자 미상, 「집장가(執杖歌)」-

(나)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모진 도리매로 / 하늘 치고 짐
 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三十度)에 맹장(猛杖)하니 일촌간장(一寸肝藏) 다 녹는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일등 춘향(一等春香)이 걸렸구나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국곡 투식(國穀偷食)하였느냐 엄형 중치(嚴刑重治)는 무삼 일고
 살인 도모(殺人圖謀)하였느냐 항쇄족쇄(項鎖足鎖)는 무삼 일고
 관전 발악(官前發惡)하였느냐 옥골 쇠심(玉骨摧甚)은 무삼 일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미가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며
 몹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아이구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옥중에서 죽을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싫소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날 죽이오 날 죽이오 신관 사또야 날 죽이오
 날 살리오 날 살리오 한양 낭군님 날 살리오
 옥 같은 정갱이에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D]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 방울 방울 떨어진다
 석벽 강상(石壁江上)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드리블고
 ㉠ 벼룩 빈대 바구미는 예도 물고 제도 뜯네
 ㉡ 석벽(石壁)에 섰는 매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뚝 떨어져 굵이
 굵이 굵이 솟아난다

- 작자 미상, 「형장가(刑杖歌)」-

1. (가)의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C]에는 춘향을 매질하고 있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A]~[C]는 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춘향의 내적 갈등을, [B], [C]는 집장 군노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2. (나)의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 죽이오’와 ‘날 살리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춘향의 애끓는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유혈이 낭자’한 춘향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을 삽입하여 춘향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도련님’과 함께 ‘한양성내’로 가는 미래를 상상하는 춘향의 모습을 묘사하여 춘향의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옥 같은 정갱이’, ‘옥 같은 얼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관 사또의 춘향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새벽 서리 찬바람’과 ‘석벽 강상 찬바람’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춘향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집장가」와 「형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 「집장가」는 신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는 춘향이 매질을 당하게 되는 대목을 엮은 것이고, 「형장가」는 춘향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을 엮은 것으로, 신관 사또의 횡포와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여 보여 준다.

- ① ㉠ : 신관 사또의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② ㉡ : 춘향은 신관 사또의 횡포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 ③ ㉢ :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은 가치 있는 것이다.
- ④ ㉣ : 신관 사또의 무자비한 횡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다.
- ⑤ ㉤ : 춘향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잡가’는 직업적인 가수에 의해 불린 노래이다. 잡가의 가수들은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만큼 대중을 울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였다. 노래로서의 음악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생동감 있게 어구를 표현하였다. 특히 판소리에서 파생된 잡가를 부를 때는 등장인물에 맞게 어투를 달리하면서 서사적 장면을 극대화하고, 대조·대구·반복 등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비장미와 골계미 등 판소리의 미학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 ① (가): 가수는 ‘좌르르’, ‘느긋느긋’, ‘느청느청’과 같은 어구를 대중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겠군.
- ② (가): 가수는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번개하듯’이라는 구절을 음악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대중이 춘향의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끼도록 노래하였겠군.
- ③ (나): 가수는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라는 구절을 춘향의 비장한 다짐에 대해 공감하면서 슬피하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였겠군.
- ④ (나): 가수는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미가 불쌍하다’라는 구절을 춘향의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잘 느껴지도록 노래하였겠군.
- ⑤ (나): 가수는 ‘몹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와 ‘아이구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라는 두 구절을 인물에 맞게 어투를 달리하여 불렀겠군